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다”
(시18:1)

주간총회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91년도 제1학기 성경연구원 3월 2일 개강

찬양대원양성부 부활, 주간성경공부 학제 개편
등록은 오늘부터

우리 교회 부설 성경연구원은 오는 3월에 주간성경공부, 교사양성부, 찬양대원양성부를 개설한다. 이 교육 과정은 총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아, 실력 있는 천국일꾼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성경연구원은 이제까지 3개월의 단기 코스로 실시해오던 주간성경공부의 수업 연한을 4학기 2년제로 개편하고, 수업도 화요일반, 목요일반은 각기 2교시로

하여 수업 시간을 연장하였다. 금요일반(아담반)은 이종윤 위임목사를 강사로 하여 새벽 6시에 수업을 갖는다. 4학기를 모두 마친 수료자들에게는 교회학교 정교사 자격증이 수여된다.

교사양성부는 주일반과 화요일반으로 나누어 5월 19일까지 총 13주 동안 교육을 실시한다.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찬양대원 양성부도 함께 개설한다는 점이다. 교회는 예배로서의 찬양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 찬양대원들의 개인적인 신앙지도와 음악성 향상을 위하여 금

년부터 찬양대원양성부를 부활시켜 전문 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봉사해왔던 찬양대원들도 본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찬양대원양성부의 교육은 5월 13일까지 실시한다. 성경연구원은 수료자들에게 찬양대원 정대원의 자격증을 수여하기로 했다.

성경연구원 개강예배는 오는 3월 2일(토) 저녁 7시에 배다니홀에서 드릴 예정이며, 등록은 오늘부터 사무국(소석관 102호)에서 접수받는다.

◆ 주간성경공부 제1학기

화요일	오전	1교시	10:00~11:00	마태복음(1)	김학진 목사
		2교시	11:00~12:00	출애굽기	송태근 목사
목요일	오전	1교시	7:00~8:00	마가복음(1)	김성운 목사
		2교시	8:00~9:00	신명기	최인근 목사
목요일	오전	1교시	10:00~11:00	빌립보서	이종윤 목사
		2교시	11:00~12:00	여호수아	정기봉 목사
금요일	오전	1교시	7:00~8:00	에베소서	신표근 목사
		2교시	8:00~9:00	사사기	김해규 목사
토요일	새벽	6:00~7:00	창세기	이종윤 목사	

◆ 교사양성부

주일반	화요일	제1교시		과목	강사	제2교시		과목	강사
		주일반: 오후 1:00~2:00	화요일반: 저녁 7:00~8:00			주일반: 오후 2:00~3:00	화요일반: 저녁 8:00~9:00		
3.2(토)	오후 7시	개강예배	이종윤 목사	교회 일꾼의 조건	김성운 목사				
3.3	3.5	영적 성장의 방법	송태근 목사	영적 성장의 방법	송태근 목사				
3.10	3.12	신앙과 윤리	김학진 목사	사회 생활과 교회 생활	김동열 목사				
3.17	3.19	장로교회사	최인근 목사	총회교회 역사	윤용규 목사				
3.24	3.26	교회론	김창수 목사	신약개론	김해규 목사				
3.31	4.2	교회론	김창수 목사	신약개론	김해규 목사				
4.7	4.9	교회학교 행정의 실제	이종국 장로	구약개론	김은태 목사				
4.14	4.16	교회학교 레크리에이션	전승훈 선생	구약개론	김은태 목사				
4.21	4.23	성령의 은사와 열매	이종윤 목사	성령의 은사와 열매	이종윤 목사				
4.28	4.30	성경의 영감성과 필요성	신표근 목사	성경의 영감성과 필요성	신표근 목사				
5.5	5.7	성경 공부 방법과 실제	정기봉 목사	성경 공부 방법과 실제	정기봉 목사				
5.12	5.14	학생 실패와 장담	정연희 전도사	은혜와 언약	김영구 목사				
5.19	5.21	교회학	교회학	교회학	교회학				

◆ 찬양대원양성부

제 1 교시(오후 7 : 00 ~ 8 : 00)		제 2 교시(오후 8 : 00 ~ 9 : 00)		
3. 2	개 강 예 배(이 조 용 목사)	교회 일꾼의 자격	김 성 윤 목사	
3. 4	제목 : 야고보서 장해 강사 : 김 은 태 목사	예배와 찬양	윤 용 규 목사	
3. 11		찬양과 신앙	김 해 규 목사	
3. 18		음 악 이 론	이 관 섭 집사	
3. 24		음 악 이 론	이 관 섭 집사	
4. 1		총합찬양대의 비전	이 관 섭 집사	
4. 8	찬양대원의 경건 생활	구 명 신 전도사	찬양대원의 경건 생활	구 명 신 전도사
4. 15	영적 침체와 성장	송 태 근 목사	영적 침체와 성장	송 태 근 목사
4. 22	교 회 론	김 영 규 목사	교 회 론	김 영 규 목사
4. 29	합창 호흡 및 발성	조 신 욱 선생	합창 호흡 및 발성	조 신 욱 선생
5. 6	합창 워크숍	박 창 훈 선생	합창 워크숍	박 창 훈 선생
5. 13	성령의 은사와 봉사	이 조 용 목사	성령의 은사와 봉사	이 조 용 목사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사랑하시는 J 집사님,

말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여 해마다 이맘때면 또 하나의 고민 아닌 무거운 짐을 안고 고투하시는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사후의 인간 영혼은 구원에 떠돌아 다니면서 일년에 몇 차례 제사마다 언어 먹으려고 귀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자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리게 되고,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 고통과 어둠 가운데서 대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죽은 자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며 산 자와 죽은 자의 대화도 불가능한 것으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예배적인 차원에서는 우상 숭배요, 기본적인 차원에서는 사파니즘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혹자는 제사 제도를 민족 교유의 미풍 양속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중국의 주희라는 사람이 유교 철학에서 만든 성리학의 가르침인 이렇 풍습이었습니다. 조상을 숭배하여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아서에서조차 유교권에 속하는 몇몇 나라들에서만 행해졌 뿐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잘못된 풍습입니다. 이번 구정에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집사님께서도 이러한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2. 10

이 중 윤 목사

미래지도자를 위한 바른 대학생활 안내

오는 22일과 23일 오후 2시에

대학의 복음화와 건전한 대학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우리 교회 모시고 학생들의 바른 대학 생활을 위한 유익한 순서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바른 대학생활 안내"가 두 주 후인 22일과 23일 오후 2시에 우리 교회에서 열린다.

이 대회 때는 서울, 경기 지역 내의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 학부

22일(금)	23일(토)	
	다함께 노래를 - 김병석 인도	다함께 노래를 - 김병석 인도
2:30	■ 강의 I 이환빈(전 아주대총장-전 부총리) "통일한국이 요구하는 청년성"	■ 강의 I 이원철(한남대 총장) "미래 이력서"
3:30	크로스 로드 공연 특별순서 - 서주남	크로스 로드 공연 특별순서 - 서주남
4:00	■ 강의 II 정근호(전 과거적 장관) "청년리 안에서의 과학 기술"	■ 강의 II 이영덕(서울대 교수, 적십자사 부총재) "통일 과제와 대학생"
5:00	간증 및 찬양 - 윤형주	간증 및 찬양 - 조하문
5:30	■ 강의 III 이종윤(총회교회 위임목사) "미래 세대를 위한 크리스찬 지도자"	■ 강의 III 김준곤(한국대학생교회 대표) "학문과 신앙"
6:30	선배와의 대화 - 학교별 모임	



이 중 윤 목사

성경 강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요 11:45-53)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찬, 반의 견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 내신 놀라운 기적 앞에서 사람들의 의견은 찬, 반 양론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요 11:45, 46)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라고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

부활 기적을 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바를 입으로 증거함으로써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입으로 증거함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 기적을 함께 목격한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고하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부활의 신앙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해할 적수가 나타났으니 경계해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였던 것입니다.

1. 잘못 소집된 공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공회는 대제사장들과 기타 종교 지도자 72명이 모이는 유대인 최고의 종교 회의였습니다. 이미 이 공회에서는 당시의 모든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려 내셨다는 보고를 받고 공회를 소집하게 될 것입니다.

공회는 하나님을 위한 회의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을 의논해야 하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공회를 시작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로 시작한 공회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결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시작된 공회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토론을 하였습니다.

본문 47절을 보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와 같이 잘못된 동기로 소집된 회의에서 논의된 토론 내용은 결국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본문 48절을 보면, 기가 막힌 결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예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 세 부류의 사람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은 이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든지 죽든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철저히 대적하는 사람들이며, 나머지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유대인들과 같은 무모한 짓을 해서는 아니됩니다.

3. 대리적 죽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편 죽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요 11:50)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죽음을 예언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한 위대한 대리적 죽음의 진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값으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 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흠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함으로써 말미암아 아담의 후예들도 모두 죄의 자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우리들은 그분의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25)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죄를 모두 사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죽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4. 한정적 속죄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요 11:51, 52)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민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한정적 속죄라고 합니다.

한정적 속죄란 우리들이 지은 죄의 일부분만을 사해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정된 사람들의 죄만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끌어집은 바와같이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사 53:8)라고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위에 적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본문 52절을 다시 보면, “흠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흠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명의 원천자요, 창조주요, 보호자요, 인도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흘리시며 돌아가신 것입니다.

■ 충현 새가족

봉사자의 삶을 기대하며

- 최혜진 성도 -

작년 12월에 우리 교회를 처음 찾게 된 후 금년 1월 첫째 주에 새가족으로 등록되어 다시금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스런 딸임을 확신하게 된 최혜진 성도를 만나 보았다.

하나님의 품안에서 다시 한번 그분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어서 인지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동안 최혜진 성도의 얼굴은 연신 기쁨에 넘쳐 있었다.

최혜진 성도가 주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국민학교 때였다. 아픈 중에 드린 기도를 받아 주셔서 치유의 손길로 만져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중학교 때는 기독교 학교인 정신여중에 다니게 되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를 앞두고 교회를 등한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입시라는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지만 교회를 멀리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교회내에서 주님과 교제를 중요시하기 보다는 남녀간의 이성 교제를 더 중요시하는 몇몇 사람들의 행동이 거슬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다가 대학에 합격한 후 3년 동안 다른 교회를 다니며 봉사하다가 벽찬 회사일로 인해 주일

을 지키기 어려워 또 한번 주님과 멀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하던 중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친구의 권유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 교회에 처음 느낀 것은 외면적으로는 교회 외관의 장중함과 아름다움이었고 내면적으로는 이종운 위임목사의 설교 말씀이 은혜로웠던 것과 교회의 분위기가 좋았던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는 신앙 생활을 더욱 열심히 하여, 세례도 받고, 열심히 성경공부를 해서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또한 가족들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므로 우선 본인부터 신앙을 견고히 하여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꼭 인도하고 싶다고 한다.

최혜진 성도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이고 찬송은 487장이라고 한다.

주님과 멀리 지냈을 때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기 보다는 원망을 앞세웠는데 이제는 기도하기를 더 좋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는 최혜진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까지나 함께하기를 바란다.

〈청년2부 춘계 특강 요지〉

산상수훈의 현대적 의미

강사 정 훈 택 교수
(충신대 신약학)

산상수훈에 접근하는 방법은 무척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신학자들 사이에 다음의 일곱 가지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첫째, 구약 시대적인 접근 방법을 애기하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산상수훈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특수한 윤리를 선포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셋째, 산상수훈을 하신 이유는 그 말씀을 지키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넷째, 심리학적으로 산상수훈에 접근해서, 산상수훈은 우리의 마음 자세만을 다룬 설교라는 주장입니다.

다섯째, 사회학적으로 접근해서, 이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회와 국가의 원리·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여섯째, 구원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산상수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지키기 어렵다는 가정하에서 출발합니다.

일곱째,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즉 예수님의 제자에

게 주신 특수한 윤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산상수훈을 천국을 향해 나가는 돌격대의 윤리라고도 표현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90퍼센트는 구원론적 접근을 지지하고 있는데, 다른 여섯 가지의 이론은 각기 나름대로의 모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의 세 가지 문제를 의문점으로 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첫째,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냐, 아니면 돌격대에게 하신 것이냐라는 점입니다. 만일 돌격대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평신도들은 지킬 이유가 없는 결론이 나오고 맙니다.

둘째, 산상수훈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도전입니다.

셋째, 산상수훈은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제시한 것인가, 아니면 그 과정까지를 묘사한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머리속에 두고 산상수훈을 공부해야 합니다.

첫째, 산상수훈에 대하여 다양

한 해석이 나오게 된 이유로는 사람들이 그 내용보다 가능성에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알아야 하는 문제는 예수님의 설교가 무엇을 이야기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맥만으로 보면, 산상수훈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도 우리가 산상수훈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따지는 점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한가라고 따지는 질문은 예수님의 설교를 오해하는 지름길입니다.

둘째, 목표와 과정을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제시한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들을 목표로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주님과 닮아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높은 기준을 내셨는데 이것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고 예수님은 다른 의도로 주셨으니 나와는 상관 없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표를 주셨으니 그것이 불가능한지는 알지만 도전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든 우리 교회 세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교육”이면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등에 초점을 맞추어 줄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한국·아시아·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목회”와 “교육의 장”을 충현의 메뉴로 내놓도록 해보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하였다.

여기서 “교육의 장(場)”이라 함은 교회학교나 성경연구회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넓게는 충현교회 조직체 안에서의 모든 교육 행위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성장하고 큰 예배당을 지은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지 않으면 안될 큰 책임을 안고 있다. 금년에도 하나님 앞에서 치루어야 할 국내외적인 행사와 사업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천국시민이 되어야 한다.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 시민이 꼭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교회 교육의 모델로 언제쯤 “교육의 장”을 보여 줄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의 명령(마 28:19)이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교육이기에, 더욱 잘해서 보여 주고픈 “교육”이다.

다음호 세기등은 오진국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교육의 장 언제 보여 줄까



조 선 군 장로

한국 기독교의 성장의 역사와 추세를 통계 자료를 통해, 살펴본 어느 한국 교회사 연구가는 몇 가지 전망 가운데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기독교의 양적 성장에 따른 질적 저하의 문제가 예상된다. 이제 한국 기독교는 지금까지 보여온 폭발적인 성장의 결과들을 어떻게 추스리고 정리하여 우리 민족 역사의 창조적 세력으로 발전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교육의 과제가 중요시된다고 하겠다. 이제야말로 전도에 쏟았던 열정을 교육에 기울여 내실 있는 기독교로 변모해야 할 때다.”

이 글은, 우리가 이제 서둘러 해야 할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시사해 준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일찍이 “천국 일꾼 양성”이라는 교회 목표를 세우고 “교육”에 힘을 기울인 탓인지, 이미 목회자·신학자·선교사 등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일꾼들과 실력 있는 천국 시민들이 배출하는 등 큰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양적으로 팽창하는 교회의 부흥에 따라 강남구 역삼동 이 자리에 새 성전을 건축하는 대공사로 인하여 교회 교육이 다소 침체되는 듯도 하였으나, 1988년 완공하여 헌당한 이후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교육적인 사명의 회복으로 더 한걸음 내디디려 하고 있다.

우리 교회의 목표 중 하나인 “교육”은 이종운 목사가 위임목사로 취임한 이후, 그 개념이 발전적으로 정립되고,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도 확실하게 규정되었다. 즉 교육 이념은 “천국시민생활”로, 모든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여 천국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며, 교육 목적은 “천국 일꾼 양성”으로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을 육성하는 것이다.

금년 교회 표어를 “모범적인 교회”로 정하고 목회 방침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종운 위임목사는,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든, 교구에서 다락방 운동을

■ 교육의 현장 - 에바다부

수화 보급 위한
각종 행사 계획

청각 장애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전도자들을 양육하고 있는 에바다부(부장 조인재 장로).

91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자”라는 교육 목표 아래 김성운 목사와 임태주 전도사의 지도로 학생부 40여명, 성인부 30여명이 모이고 있다.

에바다부는 기초적인 구원의 확신부터 개인적인 묵상 생활과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개인적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한다.

학생부는 국민학생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일 오전 9시부터 소석관 109호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분반 공부와 특별 프로그램 시간을 가진다. 분반 공부 시간에는 수화, 구화, 필답으로 의사 전달을 한다. 특별 프로그램 시간에는 수화 찬양, 성경, 비디오 상영을 통한 교육을 한다.

이를 통하여 정상인들과의 격차를 줄이고 서로간의 교제를 돈독히 한다.

성인부 학생들은 수화로 동시 통역이 되고 있는 주일 3부 예배를 함께 드리고 반별로 모여 성경 공부를 한 후,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 이 시간에는 교사들이나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신앙이나 취업, 결혼 등, 삶 속에서 흔히 겪게 되는 문제들에 관한 상담을 하기도 한다. 또한 성인반은 면회회 조직을 통해 자체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에바다부는 청각 장애로 인해 서로간의 표현의 제한을 느껴 의사 전달이 용이하지 않아 오해를 빚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끈기 있게 대화를 나누어 이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또한 에바다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농아학교로 전도를 나가 많

은 농아학교 학생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있다. 그리고 성인반도 이태원으로 노방 전도를 나가 거리의 청각 장애 노점상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에바다부는 정상인들에게 수화를 보급하기 위해 매년 수화교실을 개설하고 있다. 이제까지 고급반 4기, 중급반 5기, 초급반은 6기까지 수료생들을 배출하였으며, 올해에는 오는 3월에 개강할 예정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에바다부는 수화 보급의 일환으로 교제를 만들고,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도 갖고 있다. 에바다부는 다른 특수 부서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청각장애인들을 정상인처럼 대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청각장애인들의 복음화를 위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에바다부에 더욱 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란다.

독자의 난

춘천소년원을 다녀와서

이 미 리 학생(대학부)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4박 5일 동안 춘천 소년원에서 성경 학교가 열렸습니다. 총 35명의 교사가 성경학교에 참여했는데, 그들과 함께 원내에서 있던 기간 동안 침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원생들은 처음에 왜 우리들이 이유없이 그곳에 가서 아까운 시간과 돈을 낭비해가며 자신들을 찾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에 더 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원생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날 송명희씨 간증 시간은 그들에게 많은 의미를 주었던 것이 확실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오히려 평범하지조차 못한 그분이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열매로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으로 인한 아무런 변화도 가지지 못하고 그저 형식만을 지닌 채 삶을 허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라는 구절을 이들은 몸으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부흥회 시간에 이곳의 원생 중 누가 회개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올까, 기도하면 어김없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바늘로 찌른 다든지 온갖 방법으로 방해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것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처럼, 이곳 원생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에 대한 예고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격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또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정말 축복받은 환경을 가졌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생들의 대부분이 중학교 중퇴이고, 다음으로 많은 것이 국영학교 중퇴입니다. 물론 불량학생으로 퇴학을 당한 경우도 있으나, 상당 수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일찍부터 사회 생활을 하게 되고 물의 손길을 접하여 그곳에까지 오게 된 경우입니다. 그들은 최소한 먹고 지낼 수 있기 위해 교육이 포기되어져야 했다는 것을 생각하니, 그저 하루 세 끼 맛있게 먹고 따뜻한 곳에서 겨울을 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순종을 다짐했습니다.

4. 결론

출애굽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멍에를 지고 있는 오늘날의 불신자들처럼, 애굽에서 종의 멍에를 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라는 준비된 중개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들을 종의 상태에서 이끌어 내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출 19:6; 렘 2:9).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날 교회의 모형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문답

1.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까(출 19:6)?
2.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계명을 전달한 자로서 장차 오실 주님을 상징합니까?
3. 모세로부터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은 약속대로 계명을 지켰습니까(출 1:31)?

토의

1.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2. 지난 주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결심한 것을 이야기 해 봅시다.
3.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체험한 은혜를 같이 나누어 봅시다.

기도

1.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하면서, 피의 구속된 언약 속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2. 미래지도자를 위한 복음화 대회(2.22~23)를 위해 기도합니다.
3. 위령곡과, 원로목사의 건강과 풍성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미약방

제 7 과 언약의 나라가 조직됨

본문: 출 19:1~6

찬송: 245, 248

본문연구

출애굽기의 목적은, 우리가 살릴 때로 언약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조직에 관한 이야기를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두번째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신정 국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 때와 장소(출 19:1,2)

홍해를 건너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반도를 끼고 남동쪽으로 여행했습니다. 그곳 물은 더뭇 짜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물로 바꾸어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들은 그곳을 떠나 12개의 훌륭한 우물이 있던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그후로 비딤에서는 아말렉과 싸워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시 시나이 광야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2. 언약의 중개자 모세(출 19:3,4)

이스라엘과 함께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는 언약(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습니다(출 19:20). 그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다시 내려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알렸습니다(출 19:25).

3. 언약의 백성들(출 24:3~8)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장일치로